침묵의 광주 '목마른 첫승'

K리그1 상주에 0-1 패…3경기 연속 골 신고도 못해

광주FC의 '주장' 여름이 지난 23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상주 상무와의 2020K리그1 3라운드 경기에서 공을 쫓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의 세 번째 승점 사냥도 실패로 끝났다.

광주가 23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상주상무와 2020 K리그1 3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1 패를 기록했다. 세 번째 경기에서도 득점포 가동에 실패한 광주는 3연패에 빠졌다.

광주는 펠리페를 중심으로 이희균과 두현석을 좌우에 배치하면서 스피드를 통해 공격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일찍 실점을 하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다.

경기 시작 5분 만에 광주의 골대가 뚫렸다. 진성욱의 패스를 받은 상주 강상욱이 아크 정면에서 왼발 슈팅을 날렸고, 공은 광주 골대 왼쪽을 파고들면서 득점이 기록됐다.

전반 22분 이으뜸의 왼발 중거리 슈팅이 벗어난 뒤 전반 39분 다시 이으뜸의 왼발이 움직였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으뜸이 띄운 공을 박정수가 힐킥으로 연결했지만 아쉽게 골키퍼 황병근의 품에 안겼다.

후반 초반 두 팀이 중거리슛을 교환하면서 분위기 싸움에 나섰다.

후반 4분 상주 송승민이 먼저 오른발로 친정 광주의 골대를 노렸다. 골키퍼 윤평국이 펀칭을 하면서 실점 위기를 넘겼고, 2분 뒤 이번에는 광주 최준혁이 오른발 슈팅을 날렸다. 하지만 아쉽게 공은 골대를 비켜갔다.

후반 중반에는 두 팀이 나란히 골대를 맞히며 아쉬움을 삼켰다.

후반 19분에는 상주 안태현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가면서 광주가 한숨을 돌렸다.

5분 뒤에는 광주가 골대를 때리면서 아쉬운 탄성을 질렀다. 여름이 오른발 프리킥 상황에서 직접 슈팅을 날렸지만 공은 골대 구석을 맞고 튕겨져 나왔다.

후반 30분에도 여름이 아쉬움에 땅을 쳤다. 이으뜸이 왼쪽 측면에서 길게 올려준 공을 여름이 헤더로 연결했지만 아쉽게 골대를 비켜갔다.

후반 2분 마르코에 이어 20분 김효기를 투입했던 광주 박진섭 감독이 후반 36분에는 김주공을 넣으며 화력을 위해 교체 카드 세 장을 모두 사용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광주의 시즌 첫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그대로 0-1, 광주의 패배로 끝났다.

광주는 이날 경기에서 아찔한 순간도 경험했다.

후반 38분 김효기가 공을 쫓다 골키퍼 황병근과 충돌하면서 넘어졌다.

황병근의 무릎에 얼굴을 부딪힌 김효기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주심이 바로 경기를 중단하고 선수들이 바로 기도를 확보하는 등 경기장 분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갔다.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된 김효기는 CT촬영 결과 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김효기는 25일 광주에서 정밀 검사 등을 받을 예정이다.

원정 2연전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광주는 오는 30일 오후 7시 안방에서 울산현대를 상대로 4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악수 대신 라켓으로 앨리슨 리스케(왼쪽)와 다니엘 콜린스가 23일 미국 플로리다 웨스트 팜 비치에서 열린 테니스 시범경기(UTR 프로 매치)를 마친 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악수 대신 라켓을 부딪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경, 엑자시바시와 계약 종료…새로운 도전 나서

차기 행선지 중국 리그 유력

한국 여자 배구 간판 김연경(32)이 소속팀 터키 엑자시바시를 떠나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엑자시바시 구단은 최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연경과 상호 합의 과정을 거쳐 결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김연경은 두 차례 터키 슈퍼컵 우승과 한 차례 컵 대회 우승, 국제배구연맹(FIVB) 클럽 월드챔피언십 동메달(2018년)과 은메달(2019) 획득을 이끄는 등 맹활약했고, 2019-2020시즌엔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아쉽지만) 월드스타 김연경과 결별하기로 했다"며 "김연경이 건강하게 남은 선수 인생을 펼쳤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연경은 지난 2018년 5월 엑자시바시와 2년 계약했고, 이달 계약이 만료돼 자유계약선수(FA)가 됐다. 차기 행선지는 경기 수가 적고 한국을 손쉽게 오갈 수 있는 중국 리그가 유력해 보인다.

지난달 월드오브발리는 브라질 언론 보도를 인용해 중국 베이징 구단이 김연경에게 영입 제의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2017년 중국 상하이 구단에서 1시즌 동안 뛴 경험이 있다. 한편 김연경은 터키리그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확산 문제로 중단되자 지난달 15일 귀국해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이슨 "홀리필드보다 거물급 선수와 복귀전"

최근 복귀 여부로 세계 복싱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54)이 복귀전 상대에 대해 힌트를 줬다.

타이슨은 24일 미국 래퍼 릴 웨인이 진행하는 '영 머니 라디오' 쇼와의 인터뷰에서 에반더 홀리필드(58)가 복귀전 상대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타이슨은 "복귀전 상대가 공개되면 믿지 않을 것"이라며 홀리필드보다 더 거물급 선수와 복귀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타이슨은 "많은 선수가 나와 붙고 싶어 한다. 이번 주 안에 계약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산 전적 50승 2무 6패를 기록하면서 44차례나 KO를 뺏는 괴력을 발휘한 타이슨은 2005년 케빈 맥브라이드에게 6라운드 KO패를 당한 뒤 링을 떠났다.

하지만 타이슨은 이달 초 자신의 SNS에 훈련 영상을 올리며 자선 경기를 통한 복귀를 선언했다.

타이슨의 복귀 대전 상대로는 최근 복귀를 선언한 홀리필드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타이슨은 과거 홀리필드와 2차례 맞대결을 펼쳐 모두 패했다.

1996년 홀리필드에게 11라운드 TKO로 패했고, 1년 뒤 리턴매치에서는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는 기행으로 '핵이빨'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타이슨은 50대 중반의 나이에 복귀전에 나서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돈을 얼마나 벌던 나는 어떠한 돈도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며 "수익금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배드민턴협-목포대, 스포츠 관광상품 개발한다

콘텐츠 발굴 등 업무협약

전남배드민턴협회와 목포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소가 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선다.

전남배드민턴협회와 목포대 스포츠산업연구소는 지난 21일 목포대학교에서 김영섭 전남배드민턴협회장과 김선희 목포대 체육학과 교수 겸 스포츠산업연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산·학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 의료·스포츠 관광 산업 공동개발이 골자다.

두 기관은 지역스포츠 관광 콘텐츠(건강, 이벤트, 축제, 휴양, 교육 등)를 개발하고 공동 연구하며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목포대 스포츠산업연구소는 스포츠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 스포츠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연구하면 전남배드민턴협회에서는 배드민턴 대회를 통해 개최 시·군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업무 협약을 체결한 양 기관은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후 첫 상품으로 무안 황토갯벌축제와 연계한 스포츠 관광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전남배드민턴협회 김영섭 회장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균형있게 활성화 된 배드민턴을 통해 스포츠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전남이 전국 최고 스포츠 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목포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소 김선희 소장은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남체육이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응씨배 능가하는 세계 최대 바둑대회 준비 중"

양재호 한국기원 사무총장 밝혀

양재호 한국기원 사무총장은 응씨배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바둑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기원에 따르면, 양 사무총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전 창설 계획을 밝혔다. 또 1억5000만원 규모의 여자대회는 창설이 확정됐으며 세부사항을 다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운영 중인 기전의 다양성도 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바둑리그와 관련해 양 총장은 "올 시즌 주장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실무진이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바둑리그·시니어리그·여자리그 등 3대 리그 전체에 주장전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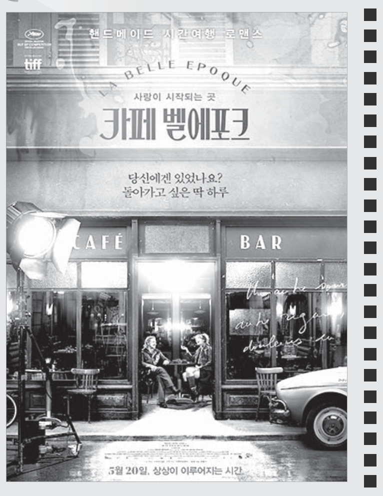
최근 불거진 한국리그 예선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기사회의 강한 요구와 후원사의 강고한 입장을 현명하게 조율하려 한다"며 "조만간 후원사에 기사회, 한국기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리그 발전과 기사 권익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젊은 신예 기사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대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양 총장은 경기도 의정부에 바둑 전용 경기장인 바둑의 전당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이 밖에 바둑 보급을 위해 바둑 부문 스포츠토토를 추진하고, 13줄 바둑 방송 등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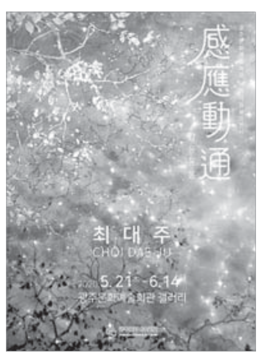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오퍼나지: 비밀의계단, 루키스
3관	호텔 레이크
4관	더 플랫폼
5관	프리즌 이스케이프
9관	나는보리, 라스트 풀 메저 비커밍 제인, 마이 스파이
7관 씨네커플	카페 벨에포크, 날씨의 아이 레이니 데이 인 뉴욕, 루키스
8관 씨네커플	위대한 쇼맨, 하이큐!! 또 다른 도전 나의 청춘은 너의 것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최대주 感應動通
2020. 5.21.(목) ~ 6.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윤한의 그대를 그리다
2020. 5.27.(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포커스
선우정아 콘서트
2020. 6.14.(일) PM 5: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